

한옥의 디자인을 보는 하나의 시각

한필원 (한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한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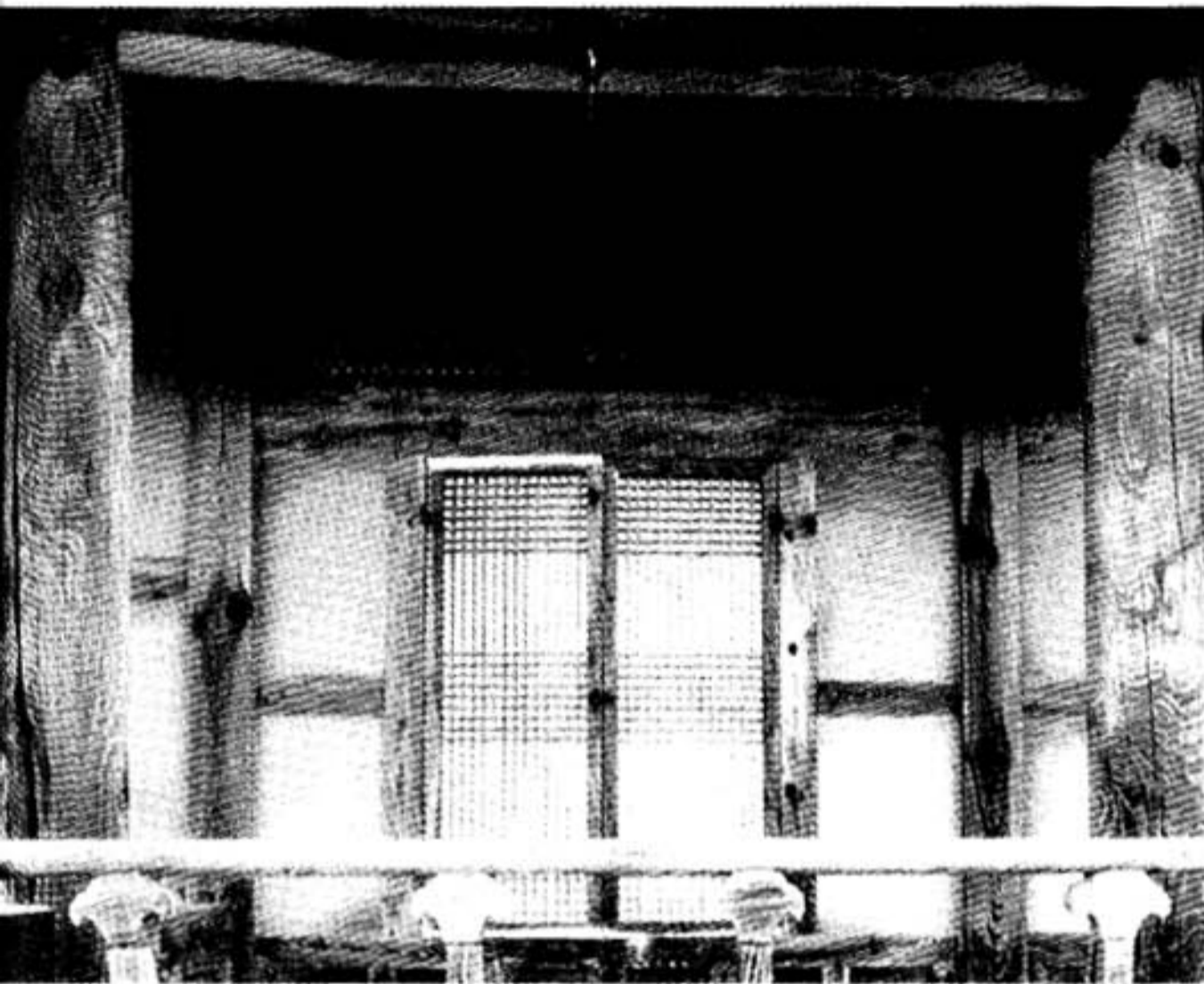
서울대 건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중국 칭화(淸華)대학 연구학자.
저서 『주거의 문화적 의미』 (공저)
홈페이지 ATA(<http://ata.hannam.ac.kr>)

초봄과 늦가을에는 주말마다 학생들과 건축답사를 다닌다. 주거건축을 공부하는 처지인지라 그 대상은 주로 한옥이다. 남아 있는 전통 한옥들은 대체로 조선 중기 이후 지어진 주택인데, 도시에서 좀 멀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몇 시간씩 운전을 한 후에야 보고싶은 한옥에 도착하곤 한다. 그러다 보니 다소 피로한 몸으로 한옥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순간 편안함과 감동이 피로를 밀어내며 몰려온다. 현대의 건축물에서는 좀체로 경험하기 힘든 독특한 느낌이다.

그 좋은 느낌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단지 느낌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각이 필요한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 필자는 전통 한옥을 '좀더 가까이서, 그리고 좀더 멀리서' 볼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옥을 볼 때는 대개 하나의 건물, 곧 채를 단위로 인식한다. 우리의 눈은 무의식중에 한 눈에 들어오는 건물을 단위로 살펴게 된다. 그러나 좀더 가까이 다가서자. 건물을 좀더 뜯어서 살펴보자는 말이다. 한옥의 공간단위는 '칸'인데, 칸이란 네 개의 기둥으로 구성되는 공간을 일컫는다. 결국 이 칸들이 다양하게 조합되어 건물이 되고 주거영역이 구성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건물을 한 덩어리로 보았다면 지금부터는 한칸한칸 나누어 살펴보자. 그리고 칸칸의 디자인이 어떠한가, 또 그것들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디자인의 이유 혹은 의미를 꼼꼼이 생각해 보는 습관은 한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전통 한옥에 이유 없는 디자인,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은 별로 없는 듯하다.

더 자세히, 건물을 이루는 부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그것들이 서로 다르면 왜 그런지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서까래를 받치는 부재인 도리에 쓰인 목재의 단면 모양을 보자. 안채와 사랑채에 쓰인 도리의 형상이 서로 다른 집들이 많다. 안채에서는 음을 상징하여 단면이 사각형인 납도리를 쓴 반면, 사랑채에서는 양을 상징하여 단면이 원형인 굴도리를 쓴 탓이다. 이러한



△ 함양 허심돌 가옥' 사랑채 한 칸의 디자인

작은 차이로부터 전통 한옥에서 안채와 사랑채가 그 구성방식은 물론 건물에 사용된 부재에 이르기 까지 일관되게 음양의 상징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좀더 가까이서 보는 동시에 좀더 멀리서도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전통건축에서는 하나의 공간 또는 영역이 그 경계에 의해 주위와 단절되는 것이 아니며 주변과 대응하고 주변으로 확장하는 개념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전통건축은 항상 주변의 맥락과 함께 살필 때 온전히 이해되며, 전통건축의 공간구성은 구조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전통건축에서는 개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 또는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건물만 바라보지 말고 그와 짝을 이루는 마당을 같이 살피자. 그리고 마당을 둘러싸는 담장과 대문 까지도. 그러면 왜 많은 한옥들에서 건물과 대문의 축이 어긋나 있는지 이해하게 된다. 온돌과 마루로 이루어진 건물의 내부구성이 비대칭이므로 그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곳에 대문을 설치한 것이다. 이

때 건물과 대문을 동일한 중심축 위에 배치한다면 오히려 불균형하게 될 것이다. 전통 한옥 배치의 특징인 '비대칭의 균형'은 이렇게 주거의 전체 영역을 살펴야만 비로소 이해된다.

주택을 볼 때 마을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마을의 요소들은 한옥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집의 구성에는 대지가 면하고 있는 길의 성격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 길도 마을의 중심도로인 안길인가 아니면 주거의 진입도로인 샛길인가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안길을 면하는 경우 사적인 공간이 길에서 먼 쪽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안길 사이엔 두 집은 공간의 배열이 대칭적으로 구성되게 된다.

이같이 전통 한옥의 디자인은 관계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란 상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전통 한옥의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디자인이다. 예를 들어, 사랑채의 누마루란 절대적으로 어느 높이 이상인 마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채에 있는 다른 마루들보다 높은 마루를 이른다. 그리고 그 위치와 높이는 앞의 마당, 그 앞의 조경요소, 그리고 다시 그 앞 멀리 보이는 안대(案帶)와의 시각적인 연결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렇게 스케일을 달리하여 보려면 다리 품을 파는 것이 불가피하다. 우리의 눈은 카메라의 줌렌즈처럼 대상을 당기고 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좀 수고롭지만, 멀리서 또 가까이서 전통 한옥에 눈의 초점을 맞추으로써 전통 한옥의 디자인에 담긴 의미를 깨닫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㉞